

일본의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R&D의 지원방안 논의

일본의 경제 산업성(經濟産業省)은 2번째 비공식 간담회로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産業競爭力戰略會議)”를 개최하고 산업계의 R&D (Research & Development : 연구개발)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산업계와 정부의 주무부서 사이에 착실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 ①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강화
- ② 대학의 산업과 관련된 R&D능력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정부의 연구지원에 있어서 많은 산업관계 R&D 과제를 조금씩 지원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선택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큰 연구성과를 올려 연구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연구개발 투자를 기업들이 각기 자기 부담으로만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타기업이나 대학과의 공동연구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우대세제(研究開發投資優待稅制)에 대하여 “미국세관은 회사의 판매고 중에 차지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비중 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증액분(增額分)에 대하여 공제하고 있어, 요즘과 같은 경제불황으로 연구개발비가 줄고 있는 현황에서는 세액의 공제액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측으로부터는 산업계의 논의에 대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을 향상토록 정부는 충분한 전략적 기획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